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25일)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위안부 할머니 모두 위중 '나눔의집' 사업 전환 시급

존립 기로 선 '나눔의집'
〈上〉 나눔의집 존립이 위험하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이 존립 위기에 봉착했다. 나눔의집 개원 이후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할머니 세 분이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두 90대 중반 이상인 세 할머니가 별세하면 나눔의집에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때 30~4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낸 나눔의집에는 현재 생존자가 박옥선·강일출·이옥선 할머니 총 3명뿐이다. 1992년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며 많은 할머니들이 별세하고, 현재 남은 할머니들도 초고령인 상황. 박옥선 할머니는 지난해 100세 상수연을 했고, 다른 두 할머니의 호적상 출생연도는 1928년이다. 세 할머니 모두 건강상태가 위중해 요양병원에 입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
할머니 양로시설 문 닫으면
사회복지법상 역할 사라져
교육 · 추모로 사업전환 필요

후원금 감소해 9억원 손실
재정상 존속기간 5년 전망
필수인력 제외 권고사직도

나눔의집은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아닌 주거시설인 양로원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거주하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나눔의집 측은 "30여 년 전 설립 당시 할머니들의 연령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요양'이 아닌 '양로'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 거동·인지가 불편해진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을 벗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존자 세 할머니의 병세가 깊어진 만큼 나눔의집에는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존립 근거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명도 없다면 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측은 할머니들의 건강상태가 향후 1년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3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두됐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양로시설이 폐쇄되면 부설기관인 역사관만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역사를 후대에 알리는 차원으로도 역사관 존치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가능할지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별세로 양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도 함께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양로가 아닌 역사 기록과 추모, 교육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게다가 이사회 감사보고에 따르면 갈수록 후원금도 감소해 최근 2년간 약 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나눔의집은 이 같은 추세라면 법인과 시설의 존속기간이 향후 5년 내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눔의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법인 폐쇄 시 기본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나눔의집 이사 일운 스님은 이사회에서 "과거 여성가족부 차관이 왔을 때 이런 시설은 특정 종교인이나 시민단체가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냐고 물었다"며 "역사관의 자료는 살아있는 문화재일 수 있고 역사 그 자체의 증언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작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역사관 존치'를 기본 입장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특수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뚜렷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나눔의집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개소한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현 부지를 기증받아 설립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생전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금활동을 주도해 흩어져 지내던 할머니들을 안정된 주거공간에 모신 것. 이런 월주 대종사의 원력과 불교계 관심이 고스란히 담긴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역사교육, 일본의 과거사 참회 촉구 등을 펼쳤다.



가천대 · 경동대 · 서울여대 · 성신여대 · 성균관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손수 만들고 색을 입힌 장엄등을 선보였다.

"대학생 불자들이 만든 장엄등 기대하세요"

가천대 · 경동대 등 장엄등 제작
"젊은 열정으로 연등회 원만 회향"

부처님오신날(올해 5월 15일)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3월 23일 서울 나무갤러리 옆 공간이 떠들썩한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대학생 불자들이 올해 연등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장엄등 만들기로 한창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 소속 가천대·경동대·서울여대·성신여대·성균관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모여 골조에 직접 풀을 바르고 조심스레 한지를 붙이며 각자만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냈다.

기존 장엄등이 오래돼 교체가 필요했던 서울여대·성신여대·성균관대. 올해 처음으로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가천대와 경동대가 대불련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날 다함께 장엄등을 제작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대불련 차원에서는 지금껏 서울·경기 지역 22개 학교가 연등축제에 참여해 왔는데, 새로 창립한 가천대와 경동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는 총 24개 학교가 제등행렬에 동참한다. 학교별로 5명씩 참석한 이들은 3월 24일까지 골조, 배접, 밑그림, 채색, 꾸미기 등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학교 마스코트가 담긴 특별한 '장엄등'을 완성할 계획이다.

3~4년 정도 사용한 장엄등이 녹이 슬어 다시 만들게 됐다는 서울여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실력은 제법 능숙했다. 장엄등 만들기에 경험이 있는 정선아 불교동아리 회장 덕분이다. 정 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동아리 활동이 저조했는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올해는 학교를 대표하는 장엄등을 새로 만들어 더욱 시작이 좋다. 활발한 동아리 운영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역시 학교 공식 캐릭터인 '수룡이'를 활용한 장엄등 제작에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무엇보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곽유진 부회장은 "장엄등을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한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다. 그래도 오늘 신입생 법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연등회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등을 들고 거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재창립 돼 자그마치 11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는 가천대 불교동아리는 처음 참여하는 연등축제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엄등 만들기에만도 자원하는 회원이 많아 선착순으로 인원을 모집했을 정도다. 한규리 회장은 "처음 제작하는 장엄등에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점점 친구들과 손발이 맞아가고 있어 결과물이 궁금하다"고 전했다. 가천대 불교동아리는 연등축제 등을 계기로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불교 교리는 물론 등산과 사찰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많은 인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친숙한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대 불교동아리는 지난해 11월 창립해 다양한 불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등회도, 장엄등 제작도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이 되길 발원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조현주 회장은 "(장엄등을) 눈으로만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가 만든 등을 들고 1시간 이상 행진할 생각을 하니 뿌듯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오늘처럼 다른 대학 법우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 대학의 장엄등 만들기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경목 대불련 서울지부장도 "연등회를 앞두고 각각의 대학과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든 준비 과정이 연등회의 원만한 회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대학생 불자들이 손수 만들어 색을 입힌 장엄등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종로 한복판에서 대중 앞에 선보인다. 김내영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는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영남알프스라 함은 1천미터가 넘는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고헌산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이 영남알프스에는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하여, 운문사 표충사 고헌사 석남사 등 천년고찰이 즐비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설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종교입니다. 편리함과 이윤추구를 위해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이미 2014~2015년 당시 울주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던'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함으로써 영남알프스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19년부터 민자로 개발한다면서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간월재 노선의 상부정류장은 영축산 정상에서 약 4km 북쪽에 있었으나 이번 신불재 노선 상부정류장은 2km밖에 안 됩니다.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영축총림 통도사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영축총림 통도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첫째,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합니다.
둘째, 각종 희귀동식물과 뭇생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게 됩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를 감싸고 있는 영축산 일대 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이밖에 안전과 경제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렇듯 반환경적이고,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이는 비단 영남알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것이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공멸의 길로 갈 것이냐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본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7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될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